

대만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교육의 과제

한국어 연음 현상 인지 교육과

교수법 모색에 관한 연구

鄭潤道(정윤도)*

Chung, Yun-do. A Study on the Comprehension of Phonological Processes in Teaching Korean. In the process of learning foreign language, the education of speaking is the basic and fundamental field. It should also be the core of learning Korean. The development of speaking skill is very closely related to the reading skill. The process of learning reading skill is to understand Korean syllabic characters and phonemes. It's the necessity of phonics education. Linking sound is the common phonological phenomena in Korean pronunciation, but it doesn't appear in Chinese. Korean learners usually prefer native Korean speaker phonics teachers for correct pronunciation. However, they don't seem to realize, not paying too much attention to it, that the linking sound is a special Korean phonological process to learn and memorize.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 of phonics education for Taiwanes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t discusses the combinations of Korean syllable structure and the linking sounds.

Keywords: Korean Language, Phonics Education, Linking Sound, Korean Teaching Methods

1. 서론

외국어 학습에 있어 말하기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자 강구적인 학습 분야이다. 말하기 학습은 자 발음에서 시작하므로, 읽기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글자와 발소리의 내용 관계인 음운 인식에 필요한 발음교육

이다.

한글은 자모로 이루어진 음소문자이지만 의사표현을 위한 말소리의 실제 운용은 음절을 단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발음 교육은 음절식 교육 위주가 되어야 하며 동시 단어나 어절을 중심으로 문자 표기와 상 관시켜 실시해야 효과적이겠다.

1.1 연구 동기와 대상

소위 ‘발음 교육’의 ‘발음’은 개별 음운의 낱소리뿐만이 아니라, 의사 표현을 위해 음절 소리들이 낱말을 이루며 이어지는 소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말 흐름의 리듬인 억양 소리 등 이런 ‘발음, 연음, 억양’을 두루 포괄하는 개념이다.

본고에서는 모어가 중국어인 대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음 현상의 발음 교육을 주제로 삼았다. 그 원인은 연음 현상은 한국어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발음 현상인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부재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음 교사는 원어민인 한국인을 선호하고 있지만, 한국인에게 연음은 특별한 음운 현상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워 오히려 소홀히 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1.2 선행 연구와 연구 내용

선행 연구에서도 김형복(2004)¹은 “한국어에서는 연음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다지 중요하게 강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한재영 외(2003), 허용 외(2007) 등에서도 바로 이점과 중국어에서의 연음 현상의 부재가 중국인 학습자들에게서 연음과 관련해 한국

* 中國文化大學韓國語文學系副教授

¹ 김형복(2004), pp.23-41

어 발음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로 꼽고 있었다.

따라서 모어가 중국어인 대만 학습자에게는 연음 현상에 관한 발음 교육이 더욱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되어 이번 연구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한국어 연음 현상은 달리 ‘음절 연결 규칙’이라고도 불린다. 선행 연구를 통해 연음 현상과 관련된 기존 연구의 시기 별 영역 및 방법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국어학 연구 분야에서는 허웅(1979)과 정연찬(1999)에서처럼 대부분이 「(C)VC-V(C)」형 음절 연쇄에 따른 현상과 원인을 통사적 관계에서 언급하고 있다.²
2.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1990년 대 이후에는 한국인이 외국어로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2000년 이후 한국어의 적극적인 해외 보급 추세에 힘입어 한국어와 중국어 간의 대조 분석을 위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근래에는 신민희 (2012)³처럼 최적성 이론을 반영해 중국어권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하는 교수법 연구도 보이고 있다.⁴

동시 필자는 실제 해외 교육 현장에서 일부 교사들이 연음 현상을 연음 법칙으로 일괄 간주해 가르치고 있음에도 주목하였다. 하지만 연

² 정연찬(1999) 제4장 현상과 원인, 2-3 (C)VC-VC연쇄, pp.160-169

³ 신민희(2012), 최적성 이론에 의한 중국인 학습자의 연음 오류 분석

⁴ 신민희(2012), p.58

| | 규칙 기반 이론 | 최적성 이론 |
|------------|-----------|-------------|
| 입력형 | 유일 가능성 | 여기의 풍부성 |
| 출력형 | 유일 가능성 | 분석의 자유성 |
| 입력형-출력형 관계 | 1:1 연계 관계 | 1:多 연계 관계 |
| 중간 도출 단계 | 가능 | 불가능 |
| 적용 장치 | 규칙 | 제약 |
| 적용 순서 | 순차적 적용 | 병렬적 적용 |
| 위반 가능성 | 위반 불가 | 위반 허용성(최소성) |

음 현상에는 연음법칙 외에도 설음법칙, 구개음화 등 다양한 음운 변동 규칙이 적용된다. 허웅(1979), 정연관(1999), 신지영·차재은(2008) 등 한국어 음운론 기본서에서도 연음 현상은 ‘음운 변동’ 단원에서가 아닌 ‘음절 구조 및 음절 연쇄’와 관련된 난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1.3 연구 목적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연음 현상과 관련해 올바른 개념의 인지 교육과 효율적인 발음 교수법의 모색을 위해 난이도에 따른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 비전공자 한국인 교수자나 외국인 교수자가 설명하기에 다소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연음 현상의 원인 규명을 통해 교수법에 참고토록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어 발음 교육의 지향적 목표는 단순히 한국어로 읽고 말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겠다.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서는 한국어다운 발음으로 읽기와 말하기가 자연스럽게 되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역시 학문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수법이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제반 문제들도 감안하여 대만 중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 연음 현상을 어떻게 인지시켜 주어야 할지 고민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여긴다.

2. 한국어 연음 현상의 의미

2.1 한국어에서 ‘연음’이란?

연음 현상은 비록 한국어만이 아니라 영어와 불어 등 다른 언어에서도 보편적으로 보이는 일반 언어 현상이지만 중국어 발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각 언어마다 그 연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있음⁵에도 유의해야 한다. 선행 연구 과정에서 한국어 연음에 대한 공통된 인식 및 사전적인 정의를 종합해 그것이 어떤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한국어에서 연음이란 선행 음절이 받침을 가지고 있고 후행하는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서 선행 음절의 받침을 후행 음절의 초성으로 가져와 재음절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2. 한국어에서의 연음은 체언에 조사가 결합할 때나 용언의 활용에서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는 때는 물론이고 단어 내부에서까지 빈번하게 일어난다.⁶
3. 받침이 제음가대로 연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질 형태소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합성어에서는 절음의 중화 과정을 거친 후에 연음이 일어난다. 또한 겹받침인 경우에는 앞자음은 종성으로 남고 뒷자음이 인음되며, 연음 후에 조건에 부합되면 이어 기타 음운 변동이 뒤따른다.

이상을 다시 분석해 보면, 바로 인음 현상의 조건(제2항), 과정(제3항), 결과(제1항)을 제시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한국어 연음 현상은 곧 ‘자음으로 끝난 음절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 이어지는’ 조건하에 특정 단어 및 어절 내부에서 음절 연쇄를 통해 음절 경계가 자연스럽게 바뀌는 현상인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를 달리 음절 구조에 따른 공식으로 가시화하면, 「(C)VC-V(C) →

⁵ 연음 현상은 스페인어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어 경계를 넘어서도 재음절화가 일어나고, 영어에서는 형태소의 종류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Axininca Campa (Arawakan language of Peru)에서는 성모가 없는 음절 앞에 무표적인 자음 /h/를 첨가함으로써 성모가 없는 음절을 피하는 것이다.”(李相任, 2007). 불어에서의 연음(liaison)은, “자음 앞과 분장 끝에서는 발음되지 않던 자음(consonne de liaison)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뒤따라 오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 연음자음(consonne de liaison)이 출현해 뒤 따르는 단어의 첫머리를 이음으로써, 재음절화가 일어나는 현상이다.”(강수영, 1994)

⁶ 본고에서는 연음의 연구 대상을 단어 내로 한정한다.

(C)V-CV(C)』⁷와 같이 된다. 정연찬(1999)에서는 이와 같음을 자연스런 음절 연쇄를 위한 경계의 조정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의도는 음절은 CV 형인 개모음이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이라 하였다.⁸ 그렇게 보면 폐모음 CVC형 음절이 빈번히 나타나는 한국어에 있어서 어의(語義) 지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음절연쇄를 통해 음절경계가 바뀌며 개모음으로 발음하고자 것은 매우 합리적인 현상이겠다. 하지만 결국 연음을 통해 결과적으로 구체적 음성적 표현인 음절음이 기저형 맞춤법과 다른 모습이 되었으니 연음 발음도 일종의 음운 변동 현상에 따른 심리적인 언어음이 되는 셈이다.

2.2 표준어 규정에 따른 한국어 연음 현상의 제약

앞서 각 언어마다 연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 및 정의에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근거하는 규정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어 연음 현상에 대한 공통된 인식 및 사전적 정의들도 역시 한국 교육부가 고시한 「표준발음법」⁹에 근거한 것이며 그에 준한 것을 규범적인 발음으로 간주하고 있다.

표준발음법에 따르면¹⁰, 연음 현상은 ‘자음 뒤에 모음이 오면’식으로

⁷ 혹 두음(onset), 말음(coda)을 구분하기 위해 ‘(C)VC’ 대신에 ‘(O)VC’ 혹 ‘(C1)VC2’라 표시 하기도 하고, 허용은 ‘CVC’ (C=초성 자음, V=음절핵, C=종성 자음)이라 표시함. p.212.

⁸ 정연찬(1999), p.161

⁹ 1988년1월19일 대한민국 문교부 고시 제88-2호

¹⁰ 「표준 발음법」 제13항: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2항-4: ‘ㅎ(ㄹ, ㄷ)’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제14항: 접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의 첫 반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접받침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제16항: 한글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 ‘ㄴ, ㅈ, ㅊ, ㅋ, ㅌ, ㅎ’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한글 맞춤법규정」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무조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음절 연쇄 조건에 따른 제약이 있는데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어절 안에서, 받침이 있는 체언과 용언 이간 뒤에 받침 뒤에 조사, 어미, 접미사 등, 즉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 한해 연음이 일어난다. 겹받침일 때는 뒤 모음을 옮겨 연음해 발음한다.
2. 단어 내부에서,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상 두 경우에서, 전자에 적용되는 음운 법칙이 ‘연음 법칙(連音法則)’이고, 후자가 ‘절음 법칙(絶音法則)’이라 구분해 일컫고 있다. 즉 한국어 인음은 모아쓰기를 통한 문자의 보수성을 고수하면서도 음성적 표현에 있어서는 재음절화를 통해 폐음절을 개음절화해 발음 상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어의의 가독을 위한 기저형 확보를 전제 조건으로 연음 표기를 가피하고 있다. 그래서 문자 표기인 한글 맞춤법에는 연음 현상이 반영되지 않으나 어휘와 어절의 구조를 통해서만이 그 제약을 엿볼 수가 있어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어렵다. 그러므로 교사는 ‘중성 자음에 모음이 이어지면’식의 무조건적인 연음이 아니라, 어휘 구조와 그에 근거한 적용 제약이 있음을 교육을 통해 주지시켜야 한다.

3. 한국어 연음 현상 발음 교수법의 모색

한국어 연음 현상의 바른 인식을 위한 교수법 모색을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을 건의해 본다.

3.1 사전적 의미의 활용법

우선 외국인 학습자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음절 연쇄의 음운론적 이론보다는 아래처럼 비교적 간략 명료한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1. 자음으로 끝나는 실질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단자음은 모음 음절의 초성으로, 겹자음은 둘째 자음이 모음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가 첫소리로 발음되는 것이다.
2. 그 연음 과정에 적용되는 음운 법칙으로 연음법칙과 절음법칙이 있는 것이다.

3.2. 연음 현상과 관련한 다양한 음운 법칙의 구분

그리고 두 음운 법칙의 차이를 쉽게 소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어휘를 예시로 제시해 비교하여 발음 표현형에서 차이가 있음을 가시화해 숙지토록 해주면 좋다.

그 한 예로써, 연음 법칙이 적용된 경우인 ‘꽃이’는 [꼬치]로 두 음절이 연이어서 발음되지만, 절음 법칙이 적용되는 합성어의 경우인 ‘꽃위에’와 ‘꽃아래’는 두 말 사이에 휴식(休息pause)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연이어서 발음하지 않고 [꼬]-[위에], [꼬]-[다래]와 같이 음절 사이를 끊어 발음한다. 이처럼 연음 현상과 관련해 적용되는 음운 규칙에는 연음과 절음 법칙 외에도 ‘굳이’[구지] 혹은 ‘같이’[가치]처럼 구개음화도¹⁾

1) ① 구개음이 아닌 자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ㅀ’ 앞에서 구개음으로 변하는 현상 ‘땀받이’가 ‘땀바지’로, ‘같이’가 ‘가치’로, ‘물히다’가 ‘무치다’로 되는 따위. (민중엡센스 국어사전)

②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ㅀ’[j]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구개음 ‘ㅈ’, ‘ㅊ’이 되거나,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등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외국인 초급 학습자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절음법칙은,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받침을 발음하는 규칙으로서,¹² 받침 뒤에 /ㄱ, ㄴ, ㄷ, ㄱ/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는 대표음¹³으로 중화된 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것을 말한다.

3.3 어휘의 난이도와 출현 빈도를 고려한 교수 방안의 강구

구체적인 교수법의 모색과 관련해서는 연음 현상이 실행되는 어휘를 예시로 들어 각기 다른 유형별로 구분해 그 현상의 원인을 비교하며 그 제약이 어떠한지를 반복해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때 교사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교수법에 반영해 보도록 권의한다.

1. 우선 그 학습 내용의 난이도와 출현 빈도를 고려해 수준별로 나눈 후, 규범적인 현상의 예는 기본(초급에 해당)과 심화I(중급)에서, 복합적 혹은 탈규범적인 현상은 심화II(고급)에서 실시 토록 선의한다.
2. 그리고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청취 및 모방, 시각적 인지, 연습 단계를 두루 안배해 재확인하 면서 익히게 한다. 특히 외국인이고 모어에 연음 현상이 부재한 대반 학습자에게 실시되는 연 음 현상에 대한 인지 교육 단계에서는 한국어와 모어의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가급적 어의가 같고 음도 비슷한 한자어를 예시로 제시해 주면 좋다.

결합하여 이루어진 ‘ㄷ’이 ‘ㅌ’이 되는 현상. ‘굳이’가 [구지]로, ‘굳히다’가 [구치다]로 되는 것 따위이다.(국립국어원표준국어사전/네이버국어사전)

¹² 표준발음법, 제4장 받침의 발음, 제15항

¹³ 발음 법칙(末音法則), 음절의 끝소리 중화 규칙, 7중성 대표음 규칙이라고도 한다.

3. 그리고 단순 규칙의 구두 설명보다는, 실제 연음 현상이 일어나는 어휘를 예시로 들어 연음 과정을 가시화시켜 주면서 학습자가 현상의 환경과 원인을 규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방과 후 자율 학습시에도 복습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해 주게 되어 좋다.

다음은 상기 상황을 고려하여 유형별 및 난이도별로 구분한 한국어 연음 현상 교수법 예시문을 제시해 보았다. 그 교습 진도 및 내용과 유의 사항 등 관련한 요점을 주지해 보면 아래와 같다.

3.3.1 기본 수준 (초급 단계)

| 수준 | 단계 | 학습 내용 및 유의 사항 |
|----|---------|--|
| 기본 | 칭취 및 모방 | ① 정각구두법으로 정확한 연음 발음에 노출, 연음 인식 ② 기본 조건 익히기 |
| | 시각적 인지 | 한국어의 기본적인 환경에서의 연음 현상을 가시적으로 제시 ① 조사와 어미가 따르는 연음 조건 제시. 동시 홀받침이 제음가 내로 연음함을 주지시켜 줌 미국+이[미구기] 막+예[막게] 부엌+예[부어게] 먹+어서 [머저시] 먹+이[머기] 놀이(놀+이)→[노리] 놀이(놀+이)→[노피] ② 접받침일 경우에는 뒤받침이 제음가대로 연음됨을 제시 닭+이[딜기] 여덟+이[여덜미] 앉+아[안자] 밥+으니[밥크니] ③ 한자어 단어 내부의 연음 현상을 가시적으로 제시 분안[聞安][부:난] 산양[山羊][사:냥] 운영[運營][우:녕] ④ 'ㅇ' /ŋ/ 받침의 연음 ps. 중국어 모음 'ㄣ, ㄤ'의 운비 /ŋ/과 유사함을 제시하기 위해 발음이 유사한 한자를 채택하면 좋음 방언[방인] vs 方言[方言] 영양[영양] vs 營養[營養] |

| | |
|----|--|
| | <p>농업[농업] vs 農業[ㄴㅇㅁㄴ 一ㅅㅇ]</p> <p>⑤ 한국어의 ‘ㄴ’ 받침의 연음 ps. 중국어의 비음 운미 발음과 대조 비교해 음운 음가는 유사하나 음절 발음을 대조해 연음 결과 후 차이를 제시 間安문안[무난] vs [ㄴㅇㅁㄴ ㄴㅇ, 윈안 wen.an, 윈난*we.nan] 簡易간이[가나] vs [ㄴㅇ 一ㅅㅇ, 쟈이 jian.yi*제너 jia.nyí] 紋樣문양[무냥] vs [ㄴㅇ 一ㅇ, 윈양 wen.yang*위냥 we.nyang]</p> <p>⑥ ‘ㅎ’ 받침은 연음 ps. 연음과 동시 모음 앞에서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ㅎ’탈락 현상으로 귀결됨을 제시 날아[나하→나아] 놓아[노하→노아] 달아[다하→다아] 만+아[만하→만아→마나] 올아[올하→올아→오라]</p> <p>⑦ 소유격조사 ‘의’로의 연음 ps. 소유격조사의 받침과의 연음에서 발음은 /-/ 혹은 /ㄱ/로 발음함음을 제시 문의[무녀/무녀] * [무녀] 곰의[곰피/곰에] * [곰피] 물외[무외/무래] * [무래] 물외[곰외/곰에] * [곰외] 닭의[달피/달게] * [다게] 복외[복외→복외/복새→복새] * [복새/모게] 삶의[살피/살에] * [살피/사메]¹⁴</p> <p>ps. 연음 결과 초성을 대동하게 된 모음 /-/의 발음을 기저형에서부터 초성을 갖을 때와 혼동해 []로 발음하지 않도록 유의시킴¹⁵ 기저형: 무녀[무녀] 희망[히달] 소유격조사: 물속의[물쏘기] * [물쏘기]</p> |
| 연습 | <p>① 조사와 이미가 따르는 어휘 구조 익히기(어휘 학습 강화) ② 연음 후 발음을 가시적으로 표시(발음기호 도출) ③ 단어 및 어절의 읽기와 듣기 반복 연습 ④ 오류 찾기 및 수정 ⑤ 듣고 쓰기 연습 병행(연음되는 대로 쓰지 않도록 유의)</p> |

¹⁴ 표준 발음법에서는 ‘닭이’는 [달기]이지만, 현재처럼 많은 이종들이 [다기]로 발음한다면 표준 발음법에서도 장래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 여지를 고려해 볼 수도 있으므로 ‘닭의, 물외, 삶의’[다게, 모게, 사메] 등도 인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다.

¹⁵ 소유격조사 ‘의’로의 연음과 관련해서는, 표준발음법 제5항 [단서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로 발음한다.’[단서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로, 조사 ‘의’는 []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3.3.2. 심화 수준I(중급 단계)

| 수준 | 단계 | 학습 내용 및 유의 사항 |
|------|---------|---|
| 심화 I | 청취 및 모방 | ① 청각구두법으로 정확한 연음 발음에 노출, 연음 인식 ② 기본 수준과 다른 특징 찾기 |
| | 시각적 인지 | ① 접반침일 경우, 기본 연음과 동시 일어나는 기타 음운변동 현상 과정을 설명해 최후 발음 표현형을 제시 붉+이[복시→목씨] 값+이[갑시→갑씨] 없+이[업시→엷씨] ② 한국어 음절초에서 ‘ㅎ’를 음가가 없는 무성자음 ‘ㅇ’ 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지시킴 影向영향[영향] * [영양] 낱아[나아] * [나하] 空港공항[공항] * [공양] VS 놓아[노아] * [노하] 整形정형[정형] * [정영] 낱아[다아] * [다하] ③ 뒤말이 실질형태소인 합성명사의 연음 현상을 가지적으로 제시 겹옷(겹+옷): [겹은→거튼] 값어치(값+어치): [가버치] * [갑서치] 한 푸어치 ps. 독립할 수 있는 낱말이 합성할 때에는 앞말 받침은 먼저 중화 현상이 일어남을 유의시킴 ④ 구개음화 제시 굳이(굳+이)→[구디]→[구치] 같이(갈+이)→[가티]→[가치] 미달이(미달+이)→[미다디]→[미다지] ps. ‘ㅣ’모음 앞 받침이 ‘ㄷ, ㅌ’에 한한을 유의시킴 ⑤ 같은 단어이라도 환경에 따라 연음규칙적용이 달라짐을 제시 값[갑] 값ㅣ이[갑씨] 값은[갑슨] vs 값+어치[갑어치→가-버치]*[갑씨치] |
| | 연습 | ① 어휘 구조 익히기(어휘 학습 강화) ② 연음 후 음운 변동 과정을 가지적으로 표시(최후 표현형 도출) ③ 단어 및 어절의 읽기와 듣기 반복 연습 ④ 오류 찾기 및 수정 ⑤ 말하기 및 쓰기 연습 병행 |

3.3.3 심화 수준II(고급 단계)

| 수준 | 단계 | 학습 내용 및 유의 사항 |
|-------|---------|---|
| 심화 II | 청취 및 모방 | ① 청각구두법으로 정확한 연음 발음에 노출, 연음 인식 ② 탈규범적 용례 익히기 |
| | 시각적 | ① 같은 단어이라도 환경에 따라 연음규칙적용이 달라짐을 제시 |

| | | |
|----|------|---|
| | 인지 | <p>값[갑] 값+이[갑씨] 값은[갑쑈] vs 값+어치[갑-이치→가-버치] * [갑씨치]</p> <p>②기타 탈규범적 용례를 제시</p> <p>-자음 병청에서 디글이[디그시] 지웃이[지으시] 치웃이[치으시] 히웃이[히으시]</p> <p>-한자어에서 한약[漢藥][하:낙] * [한낙] vs 환약[丸藥][화약] 환약만[화낭만] * [환양만]</p> <p>-구개음화 방식에서 무너[無紋+이][무니] 하니[하람][하니(바람)] * [하네]</p> <p>-합성어에서 맛+있다[마-뎡파/마실파] 맛+없다[마-뎡파]*[마섭파] 담요(담嚮+요)[담뇨] 나뭇잎(나무+(스)+잎)[나뭇+넙→나뭇넙] 물약(물+약)[물약→물낙→[물락]</p> <p>ps. '1'모음 실절 형태소'에 연음될 때 '1.'첨가 외에도 받침이 'ㄱ' 일 경우에는 'ㄱ'이 첨가됨에 유의시킨</p> <p>-불규칙용언의 활용형에서 살다: 살+아→살아[사라] vs 살+으러→살러[살러] 살+으니→사니[사니] 살+으시→살+시→사시[사시-]¹⁶ 든다: 든+어→들어[드리], 돛+으니→돛으니[드르니] 돕다: 돕+아→도오+아→도와 고맙다: 고맙+아/어→고마우+어→고마워[고마워] 부르다: 부르+어→불리[불리], 부르+으면→부르면[부르면]</p> |
| 성리 | 복합연습 | <p>① 기본, 신화 내용이 혼합된 단어와 문장 단위의 연음을 시각적으로 표시(발음기호 도출)</p> <p>② 연음 후 음운 변동 과정유 가지적으로 표시(최후 표현형 도출)</p> <p>③ 회화를 통해 말하기와 듣기 및 문장쓰기 반복 연습</p> <p>④ 오류 찾기 및 수정</p> <p>⑤ 한국어 음운의 변별적 특징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익히기</p> |

¹⁶ 'ㄱ'불규칙용언의 활용에서, /-ㄱ/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는 /ㄱ, ㅂ, ㅅ/ 초성 앞에서는 /ㄱ/이 탈락된다.

4. 특수 연음 현상의 원인

앞에서 발음 교사가 한국인일 경우에 오히려 연음 현상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그리고 다른 원인의 한가지로 한국인이든 대만인이든 비전공자일 경우 학문적 바탕의 비흡으로 인해 음절 구조 및 음절의 연쇄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기 다른 현상에 따른 원인을 설명할 수 없어서 비롯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에 선행 연구를 통해 연음 현상과 관련해 쉽게 오해를 불러올 몇 가지 용례를 선별해 그 현상과 원인을 규명해 바르게 인지하도록 보충해 본다.

4.1 단어 내부의 연음 현상

우선 단어 내부에서의 연음 현상은 어떻게 인지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이와 관련해서는 한자어 및 합성어 단어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본다.

4.1.1 한자어 어휘

한국어 한자에는 /ㄷ/ 받침음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6종성인 셈이다. 그중 받침이 /ㅇ/을 제외한 자음 /ㄱ, ㄴ, ㄹ, ㅁ, ㅂ/ 다섯 음소의 연음은 가능하다. 즉 사전적 발음표에 그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1) ㄱ. 각오覺悟, 각운脚韻, 각위各位, 각인刻印, 간악奸惡, 간언諫言, 간웅奸雄,
간이簡易, 감안勘案, 감언甘言, 감옥監獄, 감응感應, 갑오甲午, 갑인甲寅
ㄴ. 각양各樣, 갑연甲宴
ㄷ. 간어干與, 간유肝油, 감역監役
ㄹ. 갈열渴熱, 발열發熱
ㅁ. 강안江岸, 강압強壓, 강약強弱, 강어江魚, 강연講演, 강우降雨

정연찬(1999)에서는 연음 현상을 (C)VC-V(C)형 음절 구조의 연쇄를 통해 음절 경계가 바뀌는 자연스런 현상이지만도¹⁷⁾, 뒤음절이 /l/ [ㄹ] 모음계 이중모음일 때에는 연음이 “좀 미묘해” 필수적은 아닌 것 같다는 견해를 위 예시를 인용해 밝힌 바 있다. 그중 (1-ㄴ)은 [가강], [가변]과 같이 연음해 발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대로 [각양], [간언] [가변]과 같이 연음하지 않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고, (1-ㄷ) ‘간여, 간유, 감억’ 등은 연음이 거의 안 되는 듯하고, (1-ㄹ) ‘갈열, 발열’ 등은 연음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동시 (1-ㄴ~ㄹ)에서의 이중모음을 음성적으로 CV형으로 인식해 앞 음절의 받침이 내려오면 음성적으로 CCV형이 되는 것과 같아 한국어 어절 구조로는 부자연스럽다고 부연했다. 이는 음절 연쇄에서 뒤음절이 /l/ 모음계열 이중모음일 경우에 선행하는 활음을 반모음이라기보다는 반자음쪽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중모음의 음성적인 특성 외에도 다른 연유를 찾아본다면 다음절 한자어 생성과 관련이 있겠다. 표의문자인 중국 한자는 원래 단음절 어휘였으나 나날이 늘어가는 어휘의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다음절 어휘들이 생기게 되었다. 한국어 다음절 한자 대부분이 중국어에서 연용된 것이므로 합성어로서의 특성이 잔재해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연음 환경에 따라 의도적인 연음이 실행될 수도 있겠지만도, 일상화된 익숙한 한자어가 아니라면 어의 확보를 우선해 의도적인 연음을 회피할 경우도 있겠다. 그 한 예로써,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1.

¹⁷⁾ 정연찬(1999), 개정 한국어음운론, p.161: “사전에 있는 말을 몇 개 뽑았다. 한자는 ‘ㄴ’ 받침이 없으므로 6종성 뿐이다. 이들의 실제 발음은 ‘ㅇ’을 빼고는 앞 음절의 말음이 뒤 음절의 두음으로 옮겨 앉는다. 즉 기저형이 표면형으로 실현될 적에 음절경계가 바뀌는 것이다. 연음 현상으로 알려진 것이고 요즈음은 음절 연결 규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은 기저형으로 아무런 변화도 없다. 발음을 듣고 語義에 이르는 과정도 그대로 기저형일 듯하다. 발음의 과정에서도 마음 속으로 음절의 경계를 의식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아닌 듯하다. 기저형대로 발음한다고 발음한 것이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경계가 바뀌고만 것이다.”

ㄷ)의 ‘갈열’에는 연음을 지시함이 없는 반면 ‘발열[바린]’엔 연음을 지시하고 있었다. 이 역시도 한자어 단어 내부의 음절 연쇄 조건에서 음성적으로 다소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혹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연음이 불가능하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이겠다.

4.1.2 합성어

- (2) ㄱ. 옷안[오.단]속옷[소.꼴], 손아귀[소.나귀], 물오리[무.로리], 집안[지.반]
 나. 길옷[거.돋], 옷어른[우.너른], 첫아들[치.다들], 헛웃음[허.두숨], 낱알
 [나.달]
 다. 옛이야기[옌.니야기], 옛일[옌.닐]

합성어 중에서 예시(2-나)처럼 뒷말의 첫소리가 모음일지라도 독립할 수 있는 실질 형태소일 때에는, 앞말의 받침은 먼저 귀착 현상이 일어난 후에 연음한다.¹⁸ 이는 ‘옷애[오세]의 경우처럼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세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것¹⁹과 구별해, ‘옷안[오단]처럼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ㅖ/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²⁰을 밝혀 주기 위한 의도에서 먼저 대표음으로 바뀌서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절음 법칙을 적용한다.

한국어의 자음이 종성으로 쓰일 때에는 제 음가를 내지 아니하고 폐쇄음으로 중화되는 7종성 규칙의 제한을 받게 된다. 그 연유로 종성이 어말이나 다른 자음 앞에서 파열되지 않고 폐쇄 상태로 끝나는 불파(不破)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이미 밝혀져 있다. 그런데 합성어 내부에서 모음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받침으로 쓰인 자음이 제한되는

¹⁸ 허웅(1979), 246쪽

¹⁹ 표준발음법제13항

²⁰ 표준발음법제15항

연유는, 뒤에 오는 형태소가 비록 모음이지만 원래 독립된 낱말인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여서 두 말 사이에 휴식(休息 pause)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면, 뒤에 오는 말이 조사나 어미, 접미사 등 형식 형태소이라면 바로 연음되는 연음 법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뒤에 오는 말이 어의를 갖는 말이라면 무의식 중에 뒷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파괴될까봐 주춤하며 휴식을 두게 되어 절음 법칙이 적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뒤에 오는 실질 형태소가 /j/개연 모음으로 시작한다면 /ㄴ/이 덧나는 ‘ㄴ첨가 현상’이 일어나면서, 원래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자음 /ㄴ/으로 시작하는 말로 바뀌게 되므로 연음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뭇잎[나문닙]’처럼 첨가된 /ㄴ/의 영향으로 바음화가 뒤따르게 된다.²¹

4.2 ‘ㅇ’받침의 연음 여부

(3) ㄱ. 공이[공이] 강에서[강에서] 성좌을[성을] 개성은[개성은]

ㄴ. 강안江岸[강안], 강압強壓[강압], 강어江魚[강어], 강우降雨[강우]

ㄷ. 강약強弱[강약] [강년], 강연講演[강연] [강년], 공연公演[공연] [공년]

위 예시들(3)처럼 받침이 /ㅇ/[ŋ]일 경우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3-ㄱ)뿐만이 아니라 실질 형태소(3-ㄴ, ㄷ)가 뒤따르더라도 그대로 종성이 발음으로 남게 된다. 또한 (3-ㄷ)처럼 뒤음절이 /j/모음계 이중모음이더라도 두음으로 /ㄴ/이 첨가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²¹ ‘ㄴ’첨가 현상: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억, 요, 유’인 경우에는 ‘ㄴ’소리를 첨가하여 [니, 나, 네, 뇨, 이]로 발음한다. 그 예로, 숨이불[숨.니불], 맨입[맨.뉘], 식용유[시용.이], 눈요기[눈. 뇨기] 등, 한국어[한구.거] 한국인[한구.진] 북어[부.거] 감염[가.뎡] 등이 있다.

그러면 “한국어 /o/[ŋ] 음소는 왜 두음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걸까?” “중성이 /o/[ŋ] 음소일 환경에서는 음절 연쇄를 통한 개음전화가 실현되는 연음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는 걸까?” 하는 의문진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먼저 /o/[ŋ] 음소가 왜 두음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지에 대한 까닭을 알아보자.

정연찬(1999)에서는 /o/[ŋ] 음소 자체의 음성적 실현 과정의 특이성에 의거해 /o/[ŋ] 음소가 두음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원인을 설명하였는 바로 그 내용을 인용해 설명해 보면 아래와 같다.

“/o/의 실현과정은 같은 비음인 /ɰ, ɯ/과 달리 외파가 부자연스럽다. 비음은 숨이 비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구개변 (palatine velum) 여린입천장, 연구개)이 내려와 있어야 하고 이에 일정 위치에서 폐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위치에 따라, /ɰ, ɯ/은 폐쇄와 개방이 모두 자연스러우나 /o/은 폐쇄는 자연스러우나 개방이 매우 부자연스럽다. 폐쇄 위치에 구개변이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개방기리가 거의 없고 개방을 하면 그것이 불충분하여 /o/이 잘 드러날 수 없다. 이것이 /o/이 두음으로 옮겨가기 어려운 이유일 듯하다.”²²

또한 허웅(1979)에서는 한국어 음절의 경계와 관련해 논하며, /o/[ŋ] 중성 음소도 연쇄를 통한 개음전화가 실현되는 연음 현상이 일어난다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중성 사이의 자음이 하나인 경우에는 그 자음은 일반적으로 다음 음절이 초성이 된다. /o-si/(옷이) /pa:-mi/(범이) 등등..... /ŋ/가 중성 사이에 개재될 때는 앞 음절의 중성 인지 뒤 음절의 초성인지 얼핏 결정하기 곤란하다. /kaŋi/(강이) /tiŋil/(등을)....., 그러나 중성 사이의 한 자음은 죄다 뒤 음절의 초성이 되므로, 여기에서도 /ŋ/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보는 것이 좋다. /ka-ŋi/, /tiŋil/ 등등. 이것도 일종의 「불-맞추기」²³에 속한다.”

²² 정연찬(1999), 161쪽

²³ 허웅(1979), p208. 음소의 전체 조직이 어떠한 소리의 음소적 해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상을 「불-맞추기」(pattern congruity)라 한다.

부연하면 한국어의 여러 음성들 중에는 임의로 변이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²⁴ 그중에는 두음에서는 무성자음이지만 말음에서는 유성자음인 /o/[ŋ] 음소도 포함되어 있다. 표기법에 ‘o’으로 표기된 음소에는 연구개 비음 [ŋ]과 그 변이음인 구개수 비음인 [N] 두 음소의 소리가 포함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초성에서 음가가 실현되지 못하는 /o/[ŋ]은 모음 사이에서는 즉 어중 초성의 위치에서는 임의 변이음인 [N]음으로²⁵ 대체되어 후행 음절의 두 음으로서 연음될 수 있는 것이다. 허웅은 또한 /o/의 임의적 변이음인 [N]음은 어두에는 나타나지 않고 어중이나 이말에만 나타나는데, 특히 모음 사이에 있을 때는 앞음절의 종성인지 아니면 뒤 음절의 초성인지를 분명히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바로 연음 현상 환경에 있어서는 후행 음절의 초성으로 볼 수도 있다는 뜻이겠으나, 결국 받침 ‘o’ 역시도 음절 연쇄에서 연음이 가능해 개음절 화시키기 위한 연음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풀이해 설명하였다.

이렇게 보면, 앞에서 제시한 연음 현상의 인식²⁶에서 받침 자음의 범위는 ‘o’을 포함한 ‘모든 자음’이 해당되는 것이며, 음절 연쇄를 통해 음절 경계가 바뀌어 한국어의 ‘초성+중성+종성’의 구조로 음절을 이루는 들의 통칙에도 부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²⁷

4.3 중국어에 연음 현상의 부재와 관련해

표준중국어(이하 ‘중국어’로 칭함)에서 한국어 종성 자음에 대응해 대

²⁴ 허웅(1979), p.135

²⁵ [ŋ]와 [N]은 모두 같은 자리에서 임의로 교체될 수 있으면서 분화하는 일이 없는 임의 변이음이다. 허웅(1997), p.137-139, 184

²⁶ “한국어 연음 현상은 ‘자음으로 끝난 음절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 이어지는’ 조건에 단어 및 어절 내부에서 음절 연쇄를 통해 음절 경계가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²⁷ 동상주 20

조할 수 있는 것으로는, 비음 운모 /ㄱ[an], ㄴ[ən], ㄷ[an], ㄹ[ən]/의 일부인 비음 운미[-n], [-ŋ]과 권설음 운모 /ㄹ[ɐ]/ 중의 운미 [-ɪ]이다. 이를 한국어로 전사해 보면 종성 자음 /-ㄴ, -ㅇ/과 /-ㄹ/이 되겠다. 하지만 중국어에서의 [-n], [-ŋ]비음은 한국어 비음 자음과 달리 개별적인 한 음운이 되지 못하여 어두나 어중에 나타나지 못하는 제약이 있다. 즉 중국어 모음 음운인 /ㄱ[an, 안], ㄴ[ən, 언], ㄷ[an, 양], ㄹ[ən, 영]/ 및 /ㄹ[ɐ, 열]/에 속해 팔려진 비음은 보음으로 그 앞의 /아-, 어-/ 등 모음과 분리될 수 없는 까닭에 한국어 받침처럼 뒤음절에 연음되어 어중 초성에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중국어에서는 연음 현상을 통해 폐음절이 개음설화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는 단음절·고립어인 중국어의 특질과도 관계가 있다.

<표1> 중국어의 음절 구조

| 음절 | | | | |
|-----------------|-------------|-----------------------|-----------------------------------|---------|
| 분절음 | | | | 초분절음 |
| 성모(聲母) | 운모(韻母) RIME | | | 성조(聲調) |
| 보음(輔音) ONSET | 운두(韻頭) | 운복(韻腹) | 운미(韻尾) | 一 二 三 四 |
| | 개음(介音) | 주요원음(主要元音) NUCLEUS | 원음운미(元音韻尾)나 보음운미(輔音韻尾) CODA | |
| C | G | V | X(V/C) | |

<표2>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의 비교

| 중국어의 이분법 음절 연쇄 | 한국어의 삼분법 음절 연쇄 |
|---|---|
| 폐음절1 : 음절2 성모 + 운모 (운모) 운두+(운복+운미) (운두 운복) → V + C : V | 폐음절1 : 음절2 초성+중성+종성 중성 C V C V 개음절1 음절2 → C+V : C+V |

5. 맺음말

앞서 서론에서 한국어 발음교육 현장에서 흔히 연음 현상의 교육은 초급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한국어 연음 현상은 음절 연쇄를 통해 음절 경계가 바뀌어 개음절화 되어 발음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 ‘조성+중성+종성’의 구조로 음절을 이루는 기본틀 통칙에도 부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받침 ‘ㅇ’을 포함한 종성 뒤에 모음이 따르면 연음 현상이 일어난다. 다만 연음 과정에서 종성 소리값 [ŋ]은 변이음인 [N]으로서 초성에서 실현되는 것이며, 다른 자음들처럼 음절 연쇄를 통해 음절 경계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반적인 연음 현상의 인식에서 제시하는 받침 자유이란 ‘ㅇ’을 포함한 ‘모든 자음’이 해당되는 것이다.
3. 이렇게 볼지면, 받침 ‘ㅎ’탈락의 경우도 연음과 동시 모음 앞에서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ㅎ’이 탈락되는 것으로 그 현상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겹받침 ‘ㄴㅎ, ㄹㅎ’의 경우는 뒤에 있는 ‘-ㅎ’이 연음과 동시 약화되어져 탈락된 결과에 따라, 앞에 있는 받침 ‘ㄴ-, ㄹ-’이 재차 연음을 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4. 한자어 단어 내부에서는 연음이 가능하지만, 후행 모음이 ‘ㅣ 계열 이 중모음’이거나 혹 익숙한 한자 어휘가 아닌 경우에는 어의의 전달에 우선해 연음 현상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5. 합성어 단어 내부에서는 뒷말이 ‘ㅣ 모음 계열’로 시작하는 어휘일 경우는, ‘ㄴ-’음이 두음으로 첨가되어 연음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때 받침 이 /ㅂ, ㄷ, ㄱ/일 경우는 첨가된 두음 /ㄴ-/음에 의해 비음화 현상이 유발되며, 받침이 ‘ㄹ’일 경우에는 재차 유음화 현상이 유

발돼 결과적으로 두음 ‘ㄹ’음이 첨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6. 받침이 ‘ㄷ, ㅌ’일 경우에 후행 모음이 전설모음인 ‘ㅣ’음으로 시작하는 허사일 경우에 한해 구개음화가 유발된다.
7. 한자음 성명, 지명, 숫자가 있는 어휘 등에서는 연음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8. 연음 현상에 연계된 음운 변동 현상으로서는 설음 법칙, 비음화, 설측음화, 구개음화, ‘ㄴ’첨가, ‘ㅎ’탈락, 모음 축약 등 여러 음운 변동의 현상이 아울러 나타나고 있으며, 음운 변동 유형에서는 ‘귀착, 동화, 첨가, 탈락 현상’이, 동화의 유형에서는 ‘순행, 역행, 이중, 상호’, ‘직접, 간접’, ‘완전, 불완전’ 동화가 두루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어 발음에서의 ‘연음’은 결코 단순 ‘연음 법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음절 연쇄(연결)’와 관련된 복합적이나 자연스런 발음 현상의 통칭적 개념으로서 ‘연음 현상’이라 일컫어져야 마땅하므로 한국어 음운론 등 전문 서적들에서 ‘연음’을 음운 변동에서 다루지 않고 음절 연쇄에서 다루는 의혹이 자연히 해소된다.

동시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어에서의 연음 현상을 외국인 대만인 학습자에게 어떻게 인지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어와 중국어 음절이 어떻게 다르므로 음성적인 표현이 이렇게 다른지를 인식시키는 교육도 병행토록 강조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오늘날 한국어의 보급화에 따라 ‘한국어로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한국어나운’ 발음으로 말하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 할 시점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음 현상에 대한 해외 발음 교육의 현장에서는 연음 현상의 발음 교육이 초급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중급 및 고급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점차 심화시켜 나아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성곤(1983), 『음성학』, 정음사
- 신지영·차재은(2008), 『우리말 소리의 체계-국어 음운론 연구의 기초를 위하여』, 한국문화사
- 이현복(1989), 『한국어의 표준발음-음성학적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양선기(2009), 『영어음운론』, 한국문화사
- 앤후이런저, 엄익상 외 역(2010), 『중국어 말소리』, 역락
- 정연찬(1999), 『개정 한국어 음운론』, 한국문화사,
- 허용 외(200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론』, 박이정
- 허웅(1979), 『國語音韻學』, 正音社
- 강창식(1984), 「국어의 음절구조와 음운현상」, 『국어학』 13, 국어학회, pp.199-228
- 김형복(2004), 「한국어 음운 변동 규칙의 교수-학습 순서 연구」, 『한국어 교육』 15-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3-41
- 심민희(2012), 「최적성 이론에 의한 중국인 학습자의 연음 오류 분석」, 『語文學』, 第115輯, pp.55-77

投稿截止日:2016年 9月15日
審査刊登日:2016年11月15日